

차별화된 전문가
 주택, 상가, 사업체 투자매물
 무엇이든 맡겨 주십시오.
 차별화된 전문가가 꼭 필요합니다.
 (949) 501-8555 Leah Ivy Chang

부동산 · 경제
 BUSINESS · REAL ESTATE

다양한 리스팅
 다양한 종류와 가격대에 맞는
 인컴 프라퍼티 다수, 상업용 투자
 건물 등 리스팅 다수 있습니다.
 (949) 501-8555 Leah Ivy Chang

CNN, 스트리밍 시장 1년여 만에 재도전

미국의 뉴스 전문 채널 CNN이 스트리밍 서비스에 재도전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24일 CNN이 오는 9월 27일 'CNN MAX'라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보도했다.

앞서 CNN은 지난해 3월 뉴스 전문 스트리밍 서비스 'CNN+'를 출범했지만 하루 시청자가 1만 명도 채 안 될 정도로 차가운 반응 탓에 한 달 만에 서비스를 종료했다.

CNN은 당시 실패 경험을 되살려 'CNN MAX'를 'CNN+'와 차별화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 CNN방송 앵커 본사. 사진=shutterstock

CNN+는 매달 5.99달러의 시청료를 내야 했지만, CNN MAX는 모회사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의 스트리밍 서비스 'MAX' 가입자에게 무료로 공개된다.

또한 시사 및 뉴스와 관련이 없는 프로그램 제작에 공을 들였던 CNN+와는 달리 현재 CNN에서 방송되는 뉴스 프로그램들을 그대로 제공할 예정이다.

CNN이 1년여 만에 다시 스트리밍 시장 도전을 결정한 이유는 기존 케이블TV 시청률이 급감하는 등 수익성 악화에 따른 신성장동력 발굴 차원으로 보인다. CNN은 경영 악화로 지난해부터 긴축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연준 정책목표 수정론 확산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정책목표로 제시한 인플레이션 2% 복귀의 효용성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날 연준이 인플레이션 2%대 복귀를 위해 얼마나 더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고수해야 하는지를 놓고 반론이 확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기록적인 인플레이션 속에 9.1%까지 치솟았지만, 현재는 3.1%까지 하락하면서 진정 국면에 진입했다는 평가다. 다만 연준이 물가를 끌어내리기 위해 기준금리를 2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연 5.25~5.50%로 올리면서 경제 전반의 피로가 고조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현재 3.1%의 물가상승률을 2%로 낮추기 위해 추가로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실업률 상승 등 각종 고통을 감내해야 할 정도로 물가상승률 2%대 복귀라는 연준의 정책 목표 달성이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느냐는 것이다.

다만 연준이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수정할 경우 말 바꾸기로 인한 시장의 신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연준도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고수하겠다는 뜻을 천명한 상태다.

미국 7월 주택거래 줄고 집값 상승세 지속



▲ 7월 주택 거래량은 줄고 집값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다. 사진=shutterstock

미국에서 주택 거래량은 줄어드는데 집값은 고공 행진을 이어가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22일 미 부동산중개인협회(NAR)에 따르면 7월 기준주택 매매 건수가 전월 대비 2.2% 감소한 407만 건(연율 기준)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16.6% 감소했다.

이는 올해 1월 이후 가장 낮은 매매 건수이며, 주택거래 성수기인 7월 기준으로는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7월 거래된 기준주택 중위가격은 40만6천700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9% 상승했다. 고금리로 주택 매매 수요가 줄어든 가운데 기준주택 매물 공급이 더 줄어든 게 거래 감소와 집값 상승세 지속의 주된 배경으로 작용했다.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가 7%대를 웃돌면서 저금리 때 장기 고정금리로 집을 산 기존 주택 보유자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이다.

로런스 윤 NAR 수석이코노미스트는 "현재 주택 거래를 결정짓는 주된 두 가지 요인은 주택재고와 주택대출 금리"라며 "두 요인 모두 주택 구매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ONE GROUP REALTY
www.OneGroupRealty.com

Charles Lee
714.614.2426
charleslee@onegrouprealty.com

Charles Lee/Broker
Lic. #01361071, 01861239

<p>Buena Park - 가정집 (Gate Entry / 4-Min to HWY 5)</p> <p>\$1,150,000</p> <p>4 Beds + 3 Full Baths 2,426 SQ.FT. 3,600 SQ.FT. 2005년도 Built *좋은 학교 *안전한 동네</p>	<p>FULLERTON - 넓은 가정집</p> <p>\$1,100,000</p> <p>4 BEDS + 2 FULL BATHS 2,190 SQ.FT. 9,030 SQ.FT. *SUNNY HILL HIGH SCHOOL 근방 *안전하고 조용한 동네</p>	<p>Buena Park - LOS CONITO COUNTRY CLUB GATED COMMUNITY (Exclusive Luxury Living)</p> <p>\$1,592,176</p> <p>3Bed + 3 Full Baths (Single Story) 2,297 SQ.FT. *2-CAR ATTACHED GARAGE</p>	<p>새집 분양! Anaheim, Buena Park, Cypress, Huntington Beach, Irvine, Whittier, & much more 좋은 혜택 받으시고 첫 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전화 문의 바랍니다)</p> <p>2 BEDS ~ 4 BEDS, 2.5 Baths ~ 4 Baths, 1,350 sq.ft ~ 2,000 sq.ft.</p> <p>Condo/Town Homes: \$658,000 ~ \$1,250,000 Single Family Homes: \$1,500,000 ~ \$8,000,000</p> <p>*Builder & Lender Credit으로 Closing Costs 외에 Mortgage 이자 Buy-Down 도어드릴수도 있습니다. (Qualified Buyers only)</p>
<p>COMMERCIAL - LA HABRA 10 UNITS</p> <p>\$1,588,000</p> <p>건평: 5,508 SQ.FT. 땅: 20,473 SQ.FT. * INVESTMENT HIGHLIGHTS *Single Story *OWNER-USER STOREFRONT VALUE-ADD INVESTMENT *MULTIPLE TENANT (10 Units) *22 PARKING STALLS *HIGH TRAFFIC ALONG THE WHITTIER BLVD *MINIMUM MAINTENANCE *ZONING: C-2</p>	<p>FULLERTON - For LEASE 단독주택</p> <p>\$4,400 per month</p> <p>4 BED + 2.5 Baths 2,004 sq.ft. 8,716 sq.ft. *유명한 Coyote Hills Estate community *좋은 학교 *LOW MAINTENANCE *넓고 조용한 가정집 *ASSOCIATION POOL & SPA</p>	<p>LONG BEACH - 3 UNITS</p> <p>\$985,000</p> <p>2,341 SQ.FT. 6,178 SQ.FT. (LOT) 2 BED + 1 BATH (X3) 6 CAR GARAGE *OWNER - USER & MANAGE 2 OTHER UNITS!!!</p>	<p>ANAHEIM - 4 UNIT</p> <p>\$1,340,000 (NEGOTIABLE)</p> <p>3,469 SQ.FT. 7,405 SQ.FT. (LOT) 4 UNIT (2 BED + 2 FULL BATHS) GSI: \$80,460 PER YR. 자세한 정보 전화문의 바랍니다.</p>

집 부동산은 브로커 찰스 리에게!
 집/커머셜/오피스/창고/비즈니스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성실하고, 신뢰할수있는 부동산
 Agents/ Brokers 환영합니다!!